



Hana Market Weekly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자금시장영업부

2024. 7. 8

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,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자료는 신리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

주간 달러/원 동향(7/1~7/5) 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미 5월 PCE 둔화에도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한 시카고 PMI로 인한 달러 약세 제한과 급락 되돌림 등에 환율은 상승 출발. 이어 미 제조업 경기 부진에도 미 대선외 트럼프 당선 가능성 부각 등이 위험회피 심리 자극하며 추가 상승
- 중반, 파월 연준 의장의 도비시한 발언으로 인한 달러 약세에도 엔화 및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며 1390원대 재진입
- 후반, 미 IMS 서비스업 PMI 위축세와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 등 경기 냉각 조짐에 따른 약달러 영향 속 급락. 이어 주 후반,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변동성 제한된 가운데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 전 경계감 속 하단 지지되며 1380원대에서 마감

달러/원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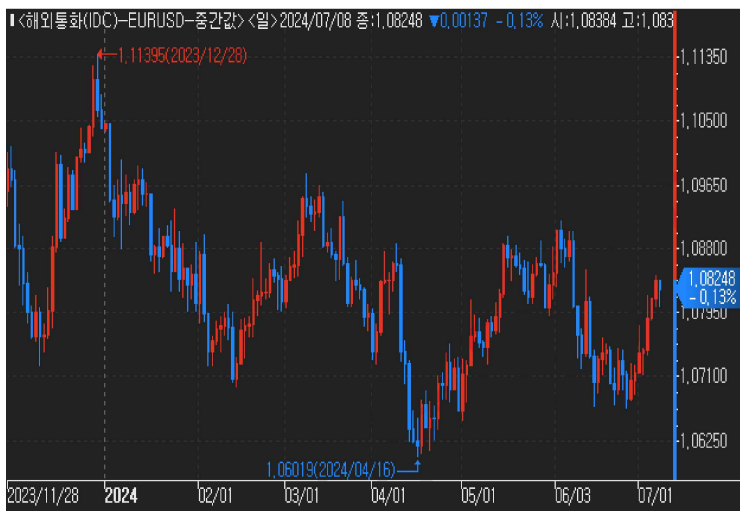
- 6월 미국 비농업고용지표 둔화 시그널에 따른 9월 금리인하 기대가 다시금 강된 영향 등을 반영 달러 약세 흐름이 다소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. 이는 미국 채 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가운데 대내 금리차 축소 등을 통해서도 원화 강세를 단기적으로 지지할 요인으로 판단
- 다만 여전히 2% 목표 달성까지에 대한 경계감이 강한 연준내 매파 위원들 성향 부각 시점 등에서는 달러 약세 제한될 것으로 보임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382.0	1391.9	1376.6	1380.3	-1.7

예상거래범위

1,370원 ~ 1,390원

엔·유로화 동향 (7/1~7/5)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(RN)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가 예상되는 측면이 유로화 가치를 지지하며 출발. 이어 파월 연준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평가 등 비둘기 스탠스가 달려 약세 견인한 영향으로 강보합
- 중반, 미국 서비스업 경기 위축세 등 둔화 시그널에 약달러 지속되며 유로화의 추가 강세 시현
- 후반, 프랑스 총선의 좌파연합 우세 전망 속 우려감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강세 지속되며 1.08달러대에서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0714	1.0843	1.0710	1.0838	+0.0124

엔화 동향

- 주초, 일본 정부의 1분기 GDP 성장률 하향 수정이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며 엔화는 161엔대에 진입. 이어 스텔리 슐리치 일본 재무상이 엔화 약세와 관련하여 경계감을 드러냄에 따라 추가 약세 제한
- 중반, 일본 당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재차 약세를 견인
- 후반, 미 고용시장 냉각 조짐과 그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을 반영한 미 국채금리 하락 등에 약세폭 되돌리는 가운데 160엔대에서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60.9	161.9	160.3	160.8	-0.1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7/1~7/5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주초, 미국 5월 PCE 지표가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, 6월 시카고 PMI 급등 영향 반영하며 미 국채 금리 상승 및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. 이어 국내 6월 소비자물가지표가 전년대비 2.4% 상승에 그치며 11개월만에 최저치 기록,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측면 반영에 따라 국고채금리 하락 전환한 양상
- 중반 들어, 연준 파월 의장의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라 미 국채 금리 하락 속에 국고채 금리 또한 하락 추세 이어진 국면
- 후반 들어, 6월 미 제조업 PMI 지표가 48.8로 시장 예상 크게 하회한 가운데 ADP 민간고용과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 국채시장 강세 속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저점 경신 후, 주 후반 뉴욕시장 휴장에 따른 재료 부재 인식 속 대기중인 미 고용지표, 금통위 기대감 반영되며 소폭 하락 마감

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미국 5월 PCE 지표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게 둔화세를 나타냈으나, 뉴욕 증시의 리밸런싱 매물때 따른 하락 영향 반영하며 보합권 출발. 이어 국내 수출 호조세에도 미 대선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반영한 미 국채금리 급등세에 투자 심리 악화되며 하락 전환
- 중반 들어,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 발언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정부의 밸류업 세제 방안 공개 등이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상승
- 후반 들어,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 영향과 전일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 관련주 상승 속 외국인 순매수 강화 등으로 상승 지속 후, 주 후반, 반도체 중심 수출 실적 호조 등 시장 펀더멘털 관련 투자심리 개선 영향 등이 반영되며 상승 마감

